

## 우리들의 모습



7월 19일(토) - 20일(주일) 1박 2일간 예비신학생 여름캠프가 있었습니다. 북면성당에 모여 해변에서 즐거운 물놀이를 하고,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형제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일차 우곡성지로 이동하여 홍유한 선생님의 '칠극'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삶 속에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비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기억해요!

### 1. 2025년 초등부 성소자 캠프

- 일 자 : 8월 5일(화) - 6일(수)
- 장 소 : 우곡성지

### 2. 대신학교 개학(8월 28일)

여름방학을 마치고 신학생들이 다시 신학교로 돌아갑니다. 겨울방학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세요.

## 예비신학생 기본교리

### 영성체



예신생 친구들,

미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 곧 성체를 받아드시지요? 우리는 이것을 '영성체'라고 하지요. 영성체는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할 수 있지만, 하루에 두 번까지 가능해요.

미사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와 다시 하나 되게 해 주심을 기억하는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죽었는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이가 하느님 나라에 들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식사가 바로 그것이지요.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들고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해 바치는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사도께서는, 만일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다른 이에게도 선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1코린 11,26 참조)

미사 참여는 자신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는 미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모시는, 다시 말해 영성체를 하는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제 미사에 참여해서 더욱 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영성체를 하도록 해요~!

##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 8월 21일 비오 예비신학생 - 임도형 (개운동, 중1)



2025년 8월

## 예비신학생 편지



<2025년 예비신학생 여름 캠프>



천주교안동교구 사목국 성소담당

[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인스타그램

## 예신생과 나누는 'Joungul'

### - "성체성사는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

카를로 아쿠티스는 1991년 5월 3일 런던에서 태어나. 2006년 10월 12일 열다섯 살 나이에 하느님 품에 안긴 이탈리아 청소년으로, 여느 십 대 아이들 처럼 스포츠, 게임, 영화, 동물들을 좋아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성체성사의 신비를 깨닫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다는 것이다. 컴퓨터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그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과 성모님 발현을 정리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15살이었던 2006년 급성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이후 2013년 체장 질환을 앓던 브라질 소년이 아쿠티스의 티셔츠 유품을 접하고 기도한 후 완치된 일이 기적으로 인정되었고, 2020년 10월 아쿠티스는 복자품에 올랐다.

그리고 2022년 자전거 사고로 중태에 빠진 코스타리카 여성의 어머니가 아쿠티스의 무덤에서 기도했는데, 열흘 후 중환자실에서 나와 회복되었다. 그래서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는 아쿠티스 복자에 의한 두 번째 기적을 인정하면서 성인품에 올리기로 했으며, 2025년 9월 7일 거행할 예정이다.

#### ▶ 카를로 아쿠티스가 남긴 말

- 내 삶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 누구나 고유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많은 사람이 남을 모방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 성체성사는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 신학생으로부터~



안녕하세요 예비신학생 친구들!  
이민우 테오필로 신학생입니다.~~~  
이번 여름은 다른 여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있나요? ㅎㅎㅎ

이번 예비신학생 편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 나눠 볼까 해요.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날의 기후변화는 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자연적인 요인도 존재하지만, 과학자들은 현재의 기후변화 속도와 규모는 인간 활동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류문명의 발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죠.

그래서 무더위가 심해지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생태계가 살아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 생태계를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예비 신학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비신학생 모임에 또 만나요~~ ^^



봉화 본당, 연구2  
이민우 테오필로 신학생

## 난 도 리 - 백종현 페르디난도



페르디난도는 허리가 원통 같고 왼쪽이 허벅지 같습니.  
2베드 3,8